

6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부 과장

“계절적인 소비위축으로 하락세 지속될 듯”

□ 금년 최고시세가 5월 한달 내내 지속되면서 하절기를 맞아 하락세로 꺾였다. 기온의 상승과 계란 소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형성된다. 매년 6~7월 계란값 약세현상을 보이고 금년 또한 예외는 아닌것 같다. 이와같이 자연의 섭리도 꺾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연중 안정된 시세에서 소비 또한 지속되리라 본다.

앞으로 전채란인의 힘으로 여름철 소비신장을 위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 4월 산란용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초생추사료가 5,155%으로 전월에 비해 5.1%, 전년도 동월대비 13.7%씩 각각 감소했다.

육추사료는 24,226%으로 전년도에 비해 4.4% 증가했다.

산란사료는 122,516%으로 전월에 비해 5.6% 감소했고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2%의 증가세에 그쳤다. 금년도 봄입추 경향을 보면 예년에 비해 1~2개월 정도 앞당겨졌고 물량은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계란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종계 입식현황은 4월까지 누계가 124,100수로 89년도 보다 35% 감소했다.

□ 향후 계란값 변화는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매년 하락하는 추세로 금년도는 1개월 정도 늦은 즉 호황이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시세가 워낙 고가임에 따라 하절기에 값이 떨어지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금년도는 노계값의 폭등으로 상당수가 중추내지 병아리 입추로 대치됐고 계란값 호황으로 인해 환우하는 경향들이 줄어 일시에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금년 하절기만 지나고나면 다시 회복되는 추세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아리값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 증가가 예년수준을 유지했음을 볼때 안정적인 계란시세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나 복병아리 생산에 가담했던 백세미의 생산 중단으로 계란생산 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6월내내 계란값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종계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

(단위 : 천수)

구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종 계 입식수수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67.5	45.3	40.6	33.2	499.9
	90	25.8	42.2	32.6	20.1									
실용계	88	1,742	2,205	2,428	2,365	1,790	1,283	1,335	1,420	1,695	1,743	1,402	1,185	20,593
	89	1,355	2,569	2,683	2,562	2,352	1,925	2,237	2,197	1,959	1,806	1,904	25,969	
	90	1,970	1,959	2,302	2,117									

그림 1. 대란고시가격 (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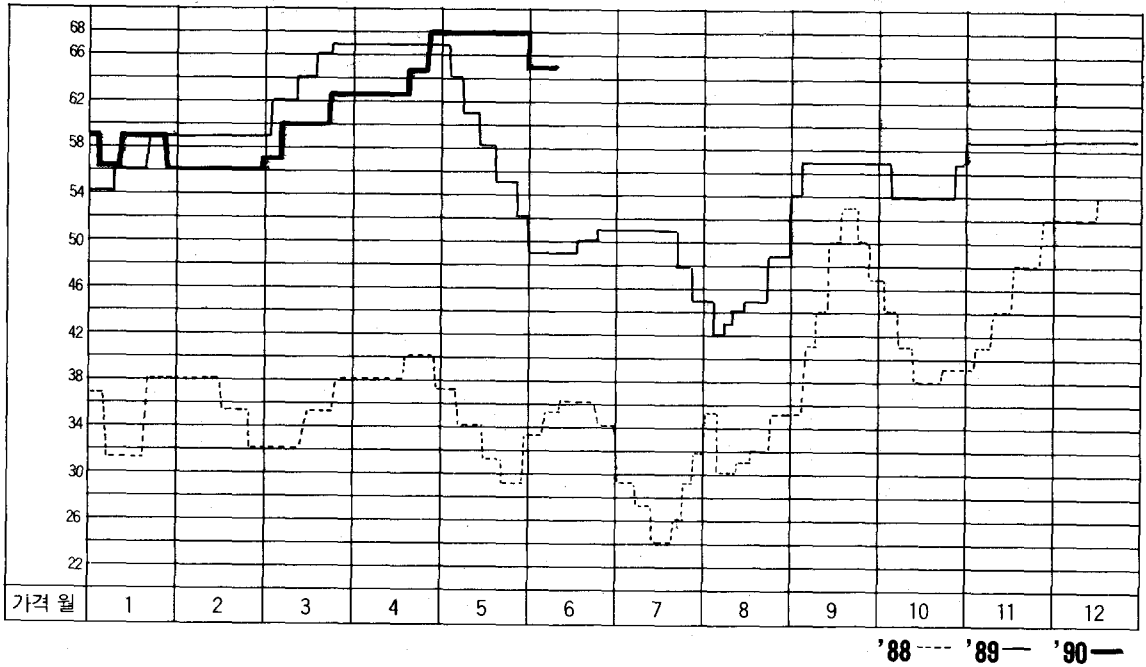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